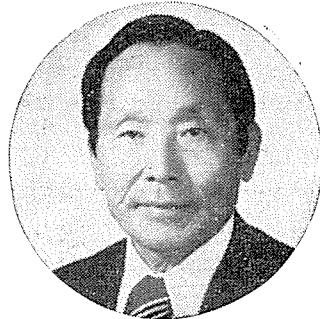


# 우리의 敘智를 総動員하여

防衛產業 育成으로 自主國防 이루고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會長 金允基

親愛하는 國內外 科學技術人 同志여러분 !

그리고 이자리에 旺臨해 주신 國內外 貴賓 여러분 !

오늘 尊敬하옵는 國務總理를 모시고 “國內外 韓國科學技術者 綜合 學術大會”를 開催함에 있어 本人이 開會辭를 하게된 것을 榮光으로, 생각하며 盛況을 이루어 주신 여러분께 感謝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祖國의 科學技術 發展에 寄與할 目的으로 이 綜合學術大會에 參席次 歸國하신 在美 韓國科學技術者 여러분의 母國訪問을 衷心으로 歡迎하며 그 勞苦에 深甚한 謝意를 表합니다.

周知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난 74年度에 在美韓國科學技術者協會 여러분을 招請하여 첫 國內外 科學技術者 綜合學術發表會를 가졌고, 이어서 지난해는 在歐 韓國科學技術者를 招請 綜合學術發表會를 가졌었습니다.

이번에 3次로 在美韓國科學技術者協會와 韓國科學技術團體 總聯合會가 共同主催로 科學技術 綜合學術大會를 開催하게 된 것입니다.

그간 두 차례에 걸친 學術發表會에서는 國內外 最新 科學技術의 研究 方向과 進度에 관한 隅意없는 討議와 比較檢討를 함으로써 相互學術交流의 契機를 마련했으며 이는 우리나라 科學技術振興에 大大的 도움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母國을 訪問한 海外科學技術人은 產業視察을 통해 飛躍的으로 發展한 祖國의 參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따라서 새로운 祖國觀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脆弱과 窮屈은 過去가 되었고 自助, 自立 協同의 精神을 基幹으로 한 새마을 運動으로 高度經濟成長과 豐饒한 來日의 새 歷史를 追求하는 오늘의 祖國은 大大的 海外同胞들에게 崇高한 奉仕의 理念을 넣게 하였으며 大大的 在外 科學技術高級頭腦가 歸國하여 國家建設에 直接 參與하는 結果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國內의 모든 科學技術人이 새마을 運動에 自進參與하여 農漁村과 새마을 工場等 產業現場에 技術奉仕 活動을 展開하는 理由도 最新 科學技術普及으로 國家發展을 促進시키기 위한 一念으로 取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1, 2次에 걸쳐 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遂行하는 동안 急進의 經濟成長을 가져왔으며 특히 지난해는 世界的인 不況속에서도 7%相當의 經濟成長을 이룩했으며 이 餘勢를 몰아 올해는 지난 6월 말 現在 輸出目標 65억 달러의 52.7%에 달하는 34억 2천 5백만 달러를 輸出하는 등 第3次 經濟開發

# 最新 科學技術 土着化하자

## 科學技術，水準向上에 時急히 對處

5個年計劃이 成功裡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날의 經驗과 앞으로 다가올 國內外의 情勢를 考慮한 第4次 經濟開發5個年計劃을 樹立, 80年代 初에는 國民 1人當 所得 1,284弗을 目標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期間동안에 各種 產業의 技術革新 및 現代化는 물론 現在 推進中인 重化學工業을 最高水準으로 이끌어야 하겠으며 防衛產業의 育成으로 自主國防의 기틀을 다져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科學技術 水準이 어디까지 왔으며 補完해야 할 課題가 어떤 점인가를 찾아 科學技術의 水準向上에 時急히 對處해야 할 것 입니다.

政府는 年間 科學技術分野에 대한 財政 投資幅을 現在의 國民總生產額 0.3%에서 第4次 經濟開發5個年計劃 期間에는 3倍가 넘는 1%로 增額 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미 國立科學財團設立計劃을 樹立, 推進中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럽게도 憲法 第123條에 “經濟發展을 위한 科學技術은暢達振興되어야 한다”고 明示하고 있듯이 科學技術의 向上 發展에 不斷히 盡力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科學technology은 아직도 專門分野에 따라서는 研究開發 改善되어야 할 末洽한 點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第4次 經濟開發5個年計劃을 遂行하기 위한 科學technology의 뒷받침은 莫重한 것으로서 우리의 敦智를 總動員하여 最新科學technology의 土着化에 末盡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綜合學術大會에서는 當初 計劃대로 機械 및 造船, 電氣, 電子와 金屬 및 材料 情報產業을 비롯하여 資源에너지, 化學工學, 生命科學, 物理數學 등의 學術發表와 討論이 있게 됩니다. 이 機會에 國際間의 最新科學technology의 現況이 分析되고 比較 檢討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동안 研磨한 學問과 技術 그리고 經驗을 忌憚없이 發表하고 吐露해서 最新科學technology의 消化와 開發革新의 轉機가 되어 이번 綜合學術大會의 目的達成에 이바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있을 產業視察을 통하여 躍進하는 祖國의 發展相과 그 眞面目을 다시 한번 살펴 줄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綜合學術大會를 열 수 있도록 支援해 주신 政府當局과 民間經濟團體關係者 여러분께 感謝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 家庭에 萬福하시기를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1976年 7月 26日